

제5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이호진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3460-1057)

차 례 ●●●

1. 제5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개요
2.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제5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이하 미·중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3년 7월 10~1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음.
 - 존 캐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 전략 트랙에서는 에너지, 환경보호, 건강,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 91개 항목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함.
 - 경제 트랙에서는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왕양 부총리의 공동주재로 양국간 경제정책 공조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4개 분야에서 총 63개 항목을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함.
- ▶ 제5차 S&ED 경제 트랙에서는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수정 양허안 제출,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인투자 허용, 금융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합의사항이 도출됨.
 - 오바마 2기 행정부 및 시진핑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차 S&ED에서 양국은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됨.
- ▶ 이번 제5차 미·중 S&ED 결과 양자간 BIT 협상과 중국의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도 예상되는바, 양국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BIT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BIT 체결로 인해 중국의 투자환경이 투명해지고 대중 외국인투자 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의 대중 투자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한국은 중국의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 시장의 성장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대중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제5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개요

■ 제5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이하 미·중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3년 7월 10~1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음.

- 미·중 S&ED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¹⁾와 고위급대화(SD)²⁾를 합쳐 대화의 수준과 의제를 격상·확대시킨 것으로 2009년부터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가며 매년 한 차례 개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중 S&ED에는 양국 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 부처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음.
 - 미국은 존 캐리 국무장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로 대표단을 구성함.
 - 중국은 왕양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로우지웨이 재정부장, 까오후청 상무부장,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을 비롯하여 주요 부처의 수장들과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 미·중 S&ED는 전략 트랙(Strategic track)과 경제 트랙(Economic track)으로 나뉘어 진행됨.

- 존 캐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 전략트랙에서는 향후 양국간 협력 증진이 필요한 분야를 비롯해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및 농업, 건강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됨.
- 경제 트랙에서는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왕양 부총리의 공동주재로 양국간 경제정책 공조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등에 관한 이슈들이 논의됨.

2.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

가. 전략 트랙

■ 미·중 양국은 제 5차 S&ED 전략 트랙에서 양자 및 글로벌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기존 논의 주제를 세분화하였음.

- 그 결과 에너지, 환경보호, 건강,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 91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음.
- 또한 양국간 에너지 및 환경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1) 미·중 양국은 다양한 경제관계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부간 고위급 경제협의체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전략경제대화(SED)를 유지해 왔음.

2) 미·중 양국이 정치안보 분야 협의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해온 차관급 대화.

표 1. 제5차 미·중 S&ED 전략 트랙 분야별 주요 합의내용

분야	주요 내용
양자 협의 및 양국간 협력 증진(22)	- 양국 고위급 회담 추진 - 사이버실무단(CWG)을 설립하여 양국 공동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반협의체 구상 - 비핵화 협력을 위한 로드맵 구축 협의 - 법률 집행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망명자, 마약범죄, 지적재산권, 사이버 범죄, 아동 포르노물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합동조사 실시 - 다자체제 내에서 반부정부패 협력 지속 및 2014년 APEC 반부정부패실무단 회의 중국 개최 지지 - 북태평양 공해에서 위법, 미보고, 비규제 행동에 관한 공동 조치 협의
지역 및 글로벌 이슈(15)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 및 평화 유지, 번영에 대한 양국간 이해를 공유하고, 아·태 지역에 관한 협의체 설립 합의 -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이슈 논의를 위한 협의 지속 - 테러 및 핵무기 확산 방지를 비롯한 주요 국제안보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대화 및 협의 지속 - 해양 및 극지방 관련 법률에 대한 대화³⁾ 지속 - 기후변화실무단(CCWG)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방지 방안 논의 지속 및 수소불산탄소에 대한 국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 - 빈곤감소,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에 대한 이슈 논의 및 관련 협력 지속
범국가적 협력(5)	- 양국간 자매결연 도시를 통한 사업기회 확대 및 인적교류 증진 -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녹색협력동반자(Eco 파트너십)’ 워크숍 진행 - 에코시티 시범도시 6곳 발표 및 관련 연구조사 실시
에너지 분야 협력(17)	- 양국간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재확인 - 에너지 관련 정보공유 협력 강화 - 중국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비전통 오일 및 가스 관련 법적 규제체계 구축 협력과 정보교류 증진 - 에너지 정책 관련 장관급 회담, 인적 교류, 에너지 규제, 불법 핵 거래 및 방사능 관련 양해각서 체결 - 마중 청정에너지 연구센터(US-China Clean Energy Research Center) 공동연구 강화
환경 분야 협력(8)	-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 개선 모델 개발, 감시 기술 협력 - 제4차 미국 환경보호청-중국 환경보호부 에너지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예정⁴⁾ - 친환경 항만 건설을 위한 인적 교류 진행 합의 - 산림 보호, 야생동물 보호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협의 지속
과학기술 및 농업 분야 협력(6)	- 해양생물자원 규약 체결 - 이상기상현상 공동연구 협력 강화 - 미·중 과학기술 합의 강화 - 양자 및 다자간 농업 관련 정책 교류 협력
건강 분야 협력(5)	- 세계 청정 조리기기 연맹⁵⁾ 기준에 부합하는 조리레인지 개발 협력 분야 논의 - 보건안보 규약 체결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관한 양자 대화(13)	-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이슈 논의 및 협력 지속 - 에너지 효율성, 핵 기술개발, 화석연료, 환경 연구, 해양 연구, 과학기술 협력, 농업기술 등에 관한 양자 대화 개최 예정

주: () 안은 항목 수

자료: 미 국무부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2013 Outcomes of the Strategic Track”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 3) 해양 및 극지방 관련 법률에 대한 대화(Dialogue on Law of the Sea and Polar issue)는 2012년 5월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제5차 대화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
- 4) 2011년 11월 북경에서 제1차 환경 법률 세미나(Seminar on Environmental Legislation)가 열린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음.
- 5) 세계 청정 조리기기 연맹(the Global Alliance for Clean Cookstoves)은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가정에 에너지 효율성 및 위생을 고려한 조리기기 1억 개 공급을 목표로 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나. 경제 트랙

- 미·중 양국은 제5차 S&ED 경제 트랙에서 양국 경제관계의 중요성과 이전 대화에서 이행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함.
 - 그 결과 양국은 경제정책 공조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의 4개 분야에서 총 63개 항목의 세부 논의 및 합의사항을 도출함(표 2 참고).
 - 또한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양국의 관련 경제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이번 제5차 S&ED에서는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수정 양허안 제출,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인투자 허용, 금융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합의사항이 도출됨.

-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양국은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 특히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 방식과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함.
 - 그동안 양국은 2008년부터 시작된 BIT 협상과 4차에 걸친 S&ED에서 BIT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BIT의 중요성 인식, BIT 체결을 위한 노력 지속 등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정제된 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양국이 높은 수준의 BIT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접근 방식과 원칙까지 합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외국인투자 허용)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함.
 - 중국 국무원은 중국경제의 개방 확대 및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일 상하이를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 서비스 부문에 자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임.

-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수정 양허안 제출)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을 위해 2013년 말까지 체결국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WTO GPA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양국은 중국의 GPA 가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중국은 2007년 WTO GPA 가입 협상을 개시하고 그해 12월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세 차례(2010년 7월

2011년 11월, 2012년 11월)에 걸쳐 각각 수정 양허안을 제출함.⁶⁾

- 그러나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 GPA 체결국들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양허하한선 추가 인하, 지방정부 및 기관(sub-central entities)의 양허범위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번 제5차 S&ED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함.
- 아울러 미·중 양국은 중국의 GPA 가입 협상의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올해 여름에 개시하기로 합의함.

■ **(금융규제 강화)**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회계감사 관리·감독,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우선 양국의 금융규제 당국간 회계감사에 대한 협조 체제가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CSRC)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조서 및 관련 자료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공하기로 함.
 - 그동안 양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는데, SEC는 회계부정 사건 조사를 위해서는 중국 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데 반해, 중국은 국가기밀 보호와 주권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음.⁷⁾
- 또한 양국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 특히 중국은 그림자 금융 행위에 대한 통계 및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 역시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기타 사항)** 이외에도 양국은 통계의 투명성 제고,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개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됨.

- 통계의 투명성 제고, 금융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특히 중국은 외환보유고 통계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IMF 특별통계공개표준(SDDS)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표출함.⁸⁾
- 중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개혁을 추진하고, 금리 자유화 및 채권보유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적격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해 중국금융선물거래(CFFE)에서 국채선물 거래를 허용할 방침임.
- 또한 중국은 소비자금융회사 설립 시범지역 확대와 국내 및 외국 소비자금융기관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함.

6) 제3차 수정 양허안(2012. 11)에서 중국은 광둥, 산둥, 푸젠 지방의 100개 정부기관을 양허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양허하한선은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 International Trade Daily(2012. 12. 6).

7) Inside US-China Trade(2013. 7. 17).

8) SDDS(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는 IMF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및 금융 통계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공개 표준으로 지난 1996년 3월 발표되었으며, 모든 IMF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 자율의사에 따라 SDDS에 가입한 회원국에 의해서 준수됨. 1999년 이후 외환보유고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임.

표 2. 제5차 미·중 S&ED 경제 트랙 분야별 주요 논의사항

분야	주요 내용
경제정책 공조 강화(15)	- 양국은 G20 환율 불균형 및 경쟁적 환율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약속 - 중국은 환율제도 개혁과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를 지속하기로 함. - 중국은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통계공표기준(SDDS) 가입을 적극 고려하기로 함. - 중국은 금리시장화 개혁 추진, 통화정책 파급경로 개선 등을 약속 - 미국은 경제의 리밸런싱을 위해 연방재정적자 축소, 국민저축 증가 및 투자확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함. - 중국은 도농간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양국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 세계경제의 안정적 회복 지원에 합의하고, 유럽과 일본 경제변화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교환하기로 함.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20)	- 양국은 높은 수준의 BIT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중국은 미국과 BIT 체결추진 의사를 선언 - 양국은 기업비밀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약속함. -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해 2013년 말까지 새로 수정된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함. - 양국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 -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전자상거래 및 상업 팩토링 시장 개방도 적극 고려 - 중국은 외국인투자 절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 미국은 중국 국유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 - 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기로 합의 - 양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형태(법률, 규제 및 규칙)의 행정허가에 관한 정보공개를 약속 - 미국은 2008년 국부펀드에 관한 OECD 선언에 따라 국부펀드 투자를 개방하고 비차별 원칙 준수를 재확인하고, 중국 역시 국부펀드에 대한 일반적 원칙 준수를 재확인 - 양국은 호혜적 무역 및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간 경제협력의 촉진·지원을 합의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10)	- G20, IMF, APEC 체제 내에서 양국간 조정 및 협력 강화 - 도하협상 등 다자무역 협상 공조 합의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18)	-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및 재정부부는 MOU 체결에 근거, 국경간 회계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 - 양국은 증권 투자협력 강화 합의, 그림자 금융에 관한 정보공유, 그림자 금융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동 협력 강화 - 미국은 미국 내 중국 금융기관에 외국 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시장 투자를 환영 - 중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개혁을 추진 - 중국은 금리자유화와 채권보유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는 물론 외국 은행 및 증권사들의 현지법인에 국채선물 거래를 허용 - 중국은 무역 및 투자거래에서 적격 외국은행 현지법인의 위안화 결제 환영

주: () 안은 항목 수.

자료: 미 재무부 "Joint U.S.-China Economic Track Fact Sheet of the Fifth Meeting of the 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를 근거로 필자 작성.

3. 평가 및 시사점

가. 과거 S&ED 경제 트랙과 비교 평가

- 5차에 걸쳐 개최된 미·중 S&ED 경제 트랙에서 미·중 양국은 분야별로 4~5개로 구분된 대주제 아래 개별 항목에 대한 협의 및 합의사항을 도출하였는데, 대주제 수준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나 각 S&ED에서 중점 논의한 사안에 따라 일부 특징과 차이점을 보임.
- 제1, 2차 S&ED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제회복에 논의의 초점을 둔 반면, 제 3차 S&ED에서는 기존 S&ED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처음으로 발표함.
 - ‘포괄적 합의’를 통해 향후 경제협력 방향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협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제 3차 S&ED와 제1, 2차 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제외하면 제 3차 S&ED의 경제 트랙 주요 의제는 대부분 지난 대화에서 논의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제4차 S&ED 이후 양국은 경제의 리밸런싱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분야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함.
 - 이에 따라 이때부터 양국간 BIT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논의, 중국의 금융개혁 및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금융규제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등장함.
-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 및 시진핑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차 S&ED에서 양국은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의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합의사항을 이끌어냄.
- 높은 수준의 BIT의 필요성 공동 인식, BIT 협상 방식과 원칙 합의, 중국의 WTO GPA 가입을 위한 수정 양허한 제출 약속,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 허용, 회계감사 관리감독 협력 및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확대 등은 과거 S&ED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표 3. 제1~4차 미·중 S&ED의 경제 트랙 주요 논의내용 비교

구 분	주요 의제 및 합의내용
제1차 S&ED (워싱턴 DC, 2009. 7. 27~28)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추진 ·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시정책 분야 공조 강화 · 뚜렷한 세계경제 회복 기미가 보일 때까지 경기부양책 조기철회 불가 합의 - 투명하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중요성에 공감 · 양국 금융시스템 규범화 및 개방화 구축 강화 -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 무역 및 투자 시스템 개방 노력, 보호주의 반대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기능 강화
제2차 S&ED (베이징, 2010. 5. 24~25)	- 경제회복 강화와 균형성장 촉진 · 경제회복 강화와 균형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공감 ·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저축확대 정책을 강조, 중국은 소비 주도의 경제성장정책 추진 강화 -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 양국간 무역 및 투자확대 협력 합의 -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탄력적이고 친시장적인 금융시스템 역할의 중요성 강조 · 양국 금융시스템의 규범화 및 감독 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제3차 S&ED (워싱턴 DC, 2011. 5. 9~10)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합의' 발표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 -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 금융시스템 강화와 금융감독 개선
제4차 S&ED (베이징, 2012. 5. 3~4)	- 거시경제 정책 공조 강화 ·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위해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미국은 연방재정적자 축소, 국민저축 증가 및 투자확대를 위한 조치 추진 -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 · BIT 협상 추진 노력 · 중국의 WTO GPA 가입 논의 지속, 중국은 2012년 말까지 수정 양허안 제출 약속 · 기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승인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국제규범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 중국은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기로 약속: 주식 및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합작증권회사의 외국인 지분 참여 비율을 33%에서 49%로 확대, 외국인의 합작금융중개업 설립을 허용함)
제5차 S&ED (워싱턴 DC, 2013. 7. 10~11)	표 2 참고

자료: 필자 작성.

나. 미·중 S&ED의 한계와 의의

- 미·중 S&ED는 그동안 다섯 차례나 개최되면서 세계 양강의 최고위급 대화체로서 면모와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새로운 논의 주제 발굴 미흡, 합의사항의 실효성 여부 측면에서 그 한계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 전략 트랙 및 경제 트랙 분야에서 대부분의 주요 의제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각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역시 세부 실행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양국간 무역구제 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 위안화 절상, 인권 및 사이버 안보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침.
- 또한 양자간 경제현안은 물론 국제정치 및 안보, 환경 같은 글로벌 이슈에 걸쳐 방만한 의제를 다룬 결과 논의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주요 합의사항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음.
- 이와 같이 미·중 S&ED가 모든 현안에 대해 실제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이 모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작지 않음.
- 미·중 S&ED는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 경제부서 수장을 망라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화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양국은 다양한 이슈를 상호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율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협의 채널을 제공한다.
-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에도 상호 포괄적·호혜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S&ED를 지속적인 대화기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 (위협 요인) 5차까지 열린 미·중 S&ED에서 진행된 논의의 범위와 성격을 볼 때, 양국은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S&ED를 전략적인 타협과 절충점을 찾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침.
- 이에 따라 향후 양국은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을 위한 갈등 속에서 전적으로 상호 이해관계에만 의존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확실하게 전개되거나 국익과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미·중 간 전략적 타협에 의해 한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로서 한국의 입장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S&ED와 유사한 형태의 포괄적인 고위급 협의체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회 요인)** 이번 제5차 미·중 S&ED 결과 양자간 BIT 협상과 중국의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도 예상되는 바, 양국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S&ED를 통한 양국의 우호적인 경제관계 구축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음.⁹⁾
- 미·중 BIT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BIT 체결로 인해 중국의 투자환경이 투명해지고 대중 외국인투자 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의 대중 투자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중국의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 시장의 성장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대중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WTO 정부조달 협정이 ‘복수국간 무역협정’임을 감안하여 체약 당사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해 개선된 수정 양허안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아울러 ‘한·중 제6차 FTA 협상(부산, 2013. 7. 2~4)’ 결과 정부조달을 FTA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한바,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특성과 체계, 수정 양허안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철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KIEP**

9) 201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5%, 10.7%로 수출시장 1, 2위에 해당함.